회향 앞둔 제36대 집행부, 종무이양 준비 분주

취임준비위 가동…매주 1회 이상 준비단별 논의

9월 27일 원행 스님 퇴임식
당일오전 공식인수인계 진행
4년 성과기록 자료집 배포도
10월 5일 오후 2시 취임법회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9월 27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차기 집행부로의 종무행정 이양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총무원은 제37대 총무원장 취임준비위원회를 설치해 회의테이블을 상시가동 중이며, 원행 스님의 퇴임식과 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퇴임식은 9월 27일 오후 2시 예정됐다. 제36대 집행부 임기를 공식 회향하는 자리인만큼, 지난 4년의 성과를 조명하고 함께한 소임자 스님들과 종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그간의 인연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낼 예정이다.

퇴임식은 내외빈 초청을 최소화한 가운데 내부행사로 조촐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원행 스님이 퇴임사를 통해 지난 4년의 소회를 밝힌데 이어, 각계 인사들의 영상메세지를 통해 인연을 되짚은 시간도 마련된다. 특히 36대 집행부의 분야별 성과와 활동기록을 담은 자료집이 이날 공식배포될 예정이다.

퇴임식 당일 오전 11시에는 36대 · 37대 집행부간 공식적인 인수인계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제37대 총무원장 취임준비위원회가 취임법회 원만봉행과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수인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준비위원회는 호산 스님과 진화 스님을 공동위원장으로, 취임법회준비단, 인수인계단, 종책개발단, 수행단, 대변인으로 구성됐다. 취임법회준비단장은 호산 스님과 지현 스님으로 구성됐으며, 인수인계단은 단장 진화 스님과 부단장 성화 스님, 종책개발단장으로는 만당 스님과 삼조 스님이 활동하고 있다. 수행단장 원명 스님이 당선인 진우 스님의 대내외행보 및 의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변인 성화 스님이 공식적인 소통창구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준비위원회에는 총무원 차팀장급 종무원들이 분야별 실무진으로 대거 참여해 37대 집행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한 실무전반을 맡고 있다. 취임법회준비단에는 총무부와 기획실, 재무부, 문화부 차팀장를 비롯해 조계사와 연등회 소속 실무진이 결합했으며, 인수인계단은 총무원 6개 부서 팀장들이 실무를 맡았다.

준비단 별로 최소 주1회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전체준비단이 참석하는 정례회의를 통해 각 분야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주요현안과 과제를 점검하는 등 37대 집행부의 원만한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들을 진행 중이다. 종무행정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수인계는 9월 16일 1차 보고에 이어, 9월 19일 이후 당선인 진우 스님에게 총무원 각 부서 및 산하기관별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선인 진우 스님이 총무원장 선거 종책자료집을 통해 발표한 3대 핵심기조와 7대 중점분야, 37개 종책과제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37대 집행부의 종단운영 원칙을 설정하고 비전과 슬로건을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제37대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의 임기개시일은 9월 28일이지만, 공식 취임법회는 10월 5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취임법회는 당선인 진우 스님의 헌화를 시작으로 삼귀의 · 반야심경 봉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법어, 진우 스님의 취임사, 원로의장 학산대원 대종사의 격려사를 비롯한 각계 축사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제36대 집행부에서 일궈낸 성과를 잘 계승하고 남은 과제를 중단 없이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종무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현안을 심도 깊게 점검해 새로운 집행부의 종책방향을 효과적으로 설정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취임법회 준비로 빠듯한 일정이지만 원만한 종무이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당역 피습 피해자 사노위 극락왕생 발원

9월 16일, 추모공간서 기도회
스토킹 범죄 방지책 제정 촉구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 범죄로 역무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사노위는 9월 16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사노위원 동신, 여등, 대각 스님이 동참했다. 기도회에 앞서 대각 스님은 "차별 없는 세상, 인간이 평등하게 삶을 보장받는 세상, 서로의 생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세상이 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노위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근본적인 방지책 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노위는 "스토킹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평범한 여성의 삶을 망가트리고 일상을 뒤흔들어 두려움 속에 생활하게 만드는 스토킹 범죄를 막을 근본적인 방지책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이듬해인 2021년에 1만4509건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관련 신고 건수는 총 1만6571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기도회 후 스님들은 여자 화장실로 이동,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며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또 애도 메시지를 남길 수 있도록 마련된 게시판에 '한국에서 다시 한 번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사라지기를 발원한다'는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다시는 어이없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기를 발원했다.

추모공간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기도회가 끝나길 기다린 후 헌화를 하고 애도의 말과 함께 '스토킹피해자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추모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중 자신을 스토킹해 온 입사 동기에 의해 살해당했다. 전씨는 A씨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수재민 돕기에 불교계 자비 손길 이어져

재단, 용화사작업장에 300만원
서초자활센터, 수해민에 도시락
동대WISE캠, 피해학생 장학금

최근 수도권에 이어진 폭우로 인명피해와 산사태,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지원금을 전달해 복구에 힘을 보태는가 하면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자비나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9월 14일 김포 용화사장애인보호작업장(원장 유성균)을 찾아 수해복구기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빠른 재건을 응원했다.

용화사장애인보호작업장은 8월 중순 이어진 폭우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작업장 비상구 축대가 무너는 등 붕괴 위험에 빠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한 시설 복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보인 스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안전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장애인들도 열심히 배우고 익혀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희망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현재 태풍 '힌남노' 피해 수재민들을 돕는 모금을 9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피해가 파악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구호 물품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모금(하나은행 271-910006-64104, 예금주 : 조계종사회복지재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이사 원명) 산하 시설 서초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은윤태)는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내 비닐하우스와 지층 거주자를 중점으로 도시락을 배포하고 있다.

식사준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락을 제작, 배송하는 '든든한식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초지역자활센터는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게 추석맞이 특식을 제공하는 등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계종립 동국대 WISE캠퍼스는 태풍 '힌남노' 피해 학생에게 특별 재난장학금을 지급한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최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 재학생에게 최대 100만원의 '특별재난지원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9월 8일 밝혔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되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은 "태풍 피해로 슬픔과 고통을 겪는 학생들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를 겪은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학업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 임은호 기자



연등회 아름다움, 파리를 밝히다

연등회 보존위, 파리 홍보행사 성료

연등회보존위원회(보존위원장 원행)가 5월 24일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한 '연등회: 빛과 색의 향연' 특별전이 누적 관람객 수 5만 명을 돌파하며 9월 16일 성료했다. 전통등 전시, 미디어아트맵핑, NFT아트전 등 3개 분야서 진행된 이번 전시는 주프랑스문화원 개원 이래 최다 관람객이라는 기록을 세우는 등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행사 기간 동안 약 30회 500여 명이 참가했다. 교육 기관 및 단체, 각종 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 방문 프로그램, 현지 유명인(인플루언서 등) 및 인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퇴근 후 문화원 탐방' 행사 등 다채로운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특히 미디어 아트 전시는 사전 관람 예약과 동시에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흥행한 애니메이션 '슈퍼배드' '미니언즈' 시리즈를 연출한 피에르 코팽 감독은 전시를 관람 후 "전시 콘텐츠가 매우 훌륭하다"고 호평을 남겼다.

노덕현 기자

나를 바라 보는 또 다른 세상



낙산묘각사 템플스테이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숭인동)
전화 : 02)763-3109
홈페이지 : www.myogaksa.net



도심 속 고요한 휴식공간
"낙산묘각사 템플스테이"

주변 사람,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곳, 현재에 존재함이 내 자신의
진정한 휴식입니다.

도심 속 사찰 묘각사에서 몸과 마음을
쉬었다 가세요.

Where is your mind?

▶ 1박2일 체험, 당일 체험
▶ 108배, 참선, 다도 & 스님과의 대화, 예불, 타종, 사찰안내